

광주에 문화예술 전문 도서관 문 열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 친구와 함께 책을 읽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작은도서관은 대형 공공도서관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소소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에 예술문화 전문 작은 도서관이 들어선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오는 13일 도심 속 복합문화복지공간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의 문을 연다. 전국에 작은도서관이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문화·예술 전문 도서관이 문을 여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작은도서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남구정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문을 열게 됐다.

작은도서관은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터를 잡았고,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예술 전문서적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긴 셈이다. 또 세미나실 등 아가자간 공간에서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곁들여지는 문화 명소가 탄생했다.

2층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은 총 248㎡ 규모로 1층에 현재 2300여권의 도서가 마련됐고, 도서열람 및 대출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2층은 문화교실(교육실), 휴게실 등이 마련돼 다양한 독서진흥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운영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를 찾아온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광주문화재단은 이 도서관을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독서문화향유 기회

광주문화재단,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 2층 규모

문화·예술 도서 등 2300여권 비치...각종 프로그램도

제공,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 등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꾸려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도 모집해 일부 운영을 맡는다.

또 지역 주민과 연계된 도서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도 이 도서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연계된 이색 프로그램도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전문 서적을 시민이 손쉽게 빌려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도서관의 큰 장점이다.

시민이 문화·예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를 비롯해 공공미술, 시각문화,

일상 예술, 미디어아트, 건축 등 분야별 책들이 비치돼 있다. 이들 책은 광주문화재단 직원 등이 기부하거나 개관을 앞두고 구입한 것들이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와 소설, 자기개발서 등의 책도 함께 비치돼 있어 가족 단위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충분하다.

한편 13일 개관식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별관 2층 앞마당에서 열리며 현관 제막식에 이어 클래식 기타 연주 등 다양한 축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062-670-79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9일 개관을 앞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내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문화재단 직원들이 책을 읽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장자의 꿈'

아트컴퍼니 원 동산아트홀서 두가지 버전 29일까지 공연

아트컴퍼니 원은 지난해 '장자의 꿈'을 초연했다. 삶에 짓눌려 살아가는 주인공의 하룻밤 꿈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이다. 초연작의 주인공은 평범한 이 시대의 아버지였다.

희곡을 쓰고 연출한 아트컴퍼니 원 광현 대표는 스토리 자체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인공을 내세워 흥미로운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작품 구조를 활용, 지난해말 취업 준비생과 위킴담의 이야기를 담은 B버전과 C버전을 내놓았다.

아트컴퍼니 원이 29일까지(평일 7시 30분, 토요일 오후 7시·3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자의 꿈' 두가지 버전을 번갈아 공연중이다.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과 공동기획으로 준비한 공연이다.

A 버전은 30대 후반의 가장 이동우가 주인공이다. 그의 회사 생활은 팍팍하다.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과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후배들의 등쌀에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그는 희안한 경험을 하게된다.

B 버전의 주인공은 20대 후반의 취업 준비생이다. 아버지 없이 엄마와 두 여동생을 돌봐야하는 허영달은 이롭담게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 입사 탈락 메시지를 받고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 역시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고 마는 데...

주인공 역을 맡은 최진영씨를 비롯해 정다현, 한종신씨가 멀티남, 멀티녀로 출연한다.

원광연 아트컴퍼니 원 대표는 "하룻밤 꿈 이야기를 통해 자아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사회속에서 갖게 되는 책임감들을 환타지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라며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현실의 삶에 살아갈만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작품을 격일로 번갈아 가며 공연함으로써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버전을 확인할 것. 티켓 가격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그는 희안한 경험을 하게된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새 CI 4월 초 공개

발전 방안 담아 새 비전 선포식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오는 4월 초 새 비전 선포식 개최와 함께 새로운 '광주비엔날레 CI'를 공개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사장 전운철)은 8일 정책연구실장 등 재단 내부 인력 7명으로 '광주비엔날레 비전·전략 TF'를 구성해 종합발전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비전·전략 TF'는 최근 혁신위에서 제시한 7대 혁신안과 2013년 재단에서 진행한 발전방안연구 운영 결과,

내부 연구 내용 등을 종합해 광주비엔날레 비전과 발전 전략을 3월 말까지 마련한다.

발전 방안이 종합 정리되면 자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초 새 비전 및 발전 방안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개발한 광주비엔날레 CI도 공개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금요상설공연

'국악 산수화 - 춤의 향연' 시작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윤이근)이 2015년 금요상설공연 '국악 산수화'를 시작했다.

지난 6일 첫 공연을 펼친 '국악 산수화'는 오는 12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국악원 대극장 진악당 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13일 진도에서 활동하는 윤림예술촌 초청 공연이 펼쳐지며 20일에는 '국악 산수화-춤의 향연' 공연된다.

이날 무대에서는 호남 살풀이춤, 교방 굿거리, 한영속류 굿거리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27일에는 기악합주-씻김, 가야금 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사물놀이 판굿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공연 당일 진도읍사무소 앞에서 오후 6시 20분에 출발하고 공연 후 진도읍사무소 앞까지 왕복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문의 061-540-40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문화학교·방과후 어린이 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빛고을 국악전수관

광주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 52기 국악문화학교' 및 '제 9기 방과후 어린이 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국악문화학교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등 8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강좌는 가야금, 해금 2개 분야로 진행된다. 국악문화학교는 지금까지 1만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과 어린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각 과정별 정원은 20명 내외다. 민요와 판소리 수강생 정원은 40명 내외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이다.

한편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은 국악 전용 공연장으로 국악전수실과 국악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우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

www.cjhellovision.com